

현대경제학은 청지기 정신을 저해하는가

실험경제학적 결과를 중심으로

Is Modern Economics an Obstacle to Stewardship?

한동근

- I. 서론
- II. 현대경제학의 특징
- III. 기독교 경제관으로서의 청지기과 공동체 정신
- IV. 실험경제학의 결과들
- V. 실험경제학적 결과들의 함의
- VI. 결론

Abstract

The proposition of the “economic man” on which neoclassical economics is based is that human being is intrinsically selfish and pursues materialism. The neoclassical theories built upon the proposition may “explain” well the fallen man’s behavior since the man has self-centered motives, which is a result of sin.

Our concern is that the neoclassical economic theories could make people more selfish and materialistic. People may justify their selfish behaviors when they get used to the “selfishness axiom” of the modern economics. This paper reviews some results from experimental economics that might verify our concern.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people get exposed to the modern economics, the more selfish behaviors they have.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rom the biblical stand of view.

I. 서론

Gordon Tullock은 “ ‘보통사람들’의 약 95%는 좁은 의미로서의 이기적 존재이다.”라고 했다.¹⁾ 우리는 이 주장이 현실을 크게 왜곡했다고 보지 않는다. 죄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 동기로 행동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실을 타당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이후의 성경이 묘사

1) Robert H. Frank, Thomas Gilovich, and Dennis T. Regan, “Does Studing Economics Inhibit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3, pp. 159~171에서 재인용.

하는 인간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모습들을 예증하고 있다.

현대경제학의 이론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물질적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경제인'(economic man)이라 불리는 이러한 인간관을 상정하는 현대경제이론은 인간이 직면하는 제약요소들을 고려한 후, 그 제약조건 아래서 '경제인'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엄밀한 연역과정으로 탐구한다. 그 탐구의 결과가 인간행동에 대한 예측을 낳고, 그 예측이 통계적 검정과정을 거쳐 '법칙'으로 자리잡는다. 인간이 정말 이기적 동기만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부분이 이기적 동기로 행동한다면 현대경제이론은 이기적 인간의 행태를 '설명'하는 훌륭한 분석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라 해서 현대경제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²⁾ 예컨대 하나님의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책개발에 어떤 그리스도인 경제학자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자.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려면 먼저 경제정책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각 정책대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현대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관심은 현대경제학 그 자체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를 '강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의 우려는 현대경제학이 가정하는 자기중심적 인간관, 물질주의, 그리고 그 가정들로부터 도출된 경제모형들과 법칙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중심주의, 물질주의를 합리화해 버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인간의 이기적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은 사실상 인간이

2) 여기서 현대경제학이라 함은 신고전학파의 이론체계를 의미하며, 특히 본문의 맥락에서는 '실증이론'(positive theory)을 의미한다. 현대경제학의 규범이론(normative theory)에 대해서는 많은 기독교적 비판이 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규범이론이 되는 셈이고, 이때의 규범은 인간의 이기심을 완화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규범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경제학자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성경의 정신과 현대경제학은 조화될 수 있는가? 본고는 현대경제학에의 노출 정도와 인간의 이기적 행동 정도의 상관성에 관한 실험결과들을 정리하고 기독교적 시각에서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의는 '기독교 경제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 분야에서 현대경제학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들, 또 그 가정들로부터 도출된 여러 가지 경제법칙들을 검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의 목적은 대개 현대경제이론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성경의 경제규범인 청지기 정신의 고양이라는 관점에서 몇몇 실험경제학적 연구결과들을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현대경제학이라 함은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와 III에서는 현대경제학의 특징적 요소들을 기독교의 경제관과 대비하여 정리·논의한다. IV에서는 실험경제학적 실험을 통해 밝혀진 현대경제학과 인간행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V에서는 이들 실험결과가 그리스도인 경제학자에게 주는 함의를 논의한다. VI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현대경제학의 특징

논의의 초점에 따라 현대경제학의 특징은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 다.³⁾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현대경제학이 인간의 이기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경제학의 여러 특징적 요소 중에서 기독교 사상 및 경제관과 대비되는 자기중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현대경제학은 자기중심적 인간관과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기중심적 인간관과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서로를 지원하며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다수의 현대경제학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전자를 실증경제 문제로, 후자를 규범경제(혹은 후생경제) 문제로 따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런 전통을 따라 편의상 ‘경제인’(economic man)을 인간모형으로 다루는 실증적 측면과 가치판단의 규범적 문제를 분리하여 현대경제학의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1. 자기중심적 인간모형(self-centered humanbeing model)

경제학의 이론전개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모형이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근본 동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인간모형화의 문제이다. 인간의 행동동기에 대한 모형이 일단 설정되면 경제학자는 엄격한 연역과정을 거쳐 인간행동을 예측하는 ‘경제법칙’들을 유도해 낸다. 그런데 거의 모든 현대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인간의 행태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한다. 이것은 현대경제학의 전통에서는 검증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제이론이 기초하는 ‘공리’(axiom)가 되어 버렸다. 자기중심적 인간이라는 공리와 함께 또 하나의 공리가 현대경제이론에 도입되는데 그것은 합리성이다. 즉 현대경제학은 인간의 대표적 특성으로 자기중심성과 합리성을 뽑아 여기에 연역적 추론을 가하여 인간의 행동을 예측

3) Donald A. Hay, 「현대경제학과 청지기윤리」(*Economics Today : a Christian Critique*, 1989, IVP), 1의 3장에서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현대경제학을 실증경제학, 규범경제학의 두 분야로 나누어 특징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하는 법칙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선호관계(preferences)라 불리는 선택대안들 간의 순위매김이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⁴⁾ 합리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인간관을 경제학에서는 밀(J. S. Mill)의 전통을 따라 '경제인'이라 부른다.

사실 경제학에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인간선호에 대한 공리들은 인간이 반드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관심과 대상이 되는 상품묶음(bundle of commodities) 내에 개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도 들어 있다면 그 효용함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경제분석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효용함수에 그 개인이 소비할 재화의 양만 포함시킨다. 모든 수준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가 행동하는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max U(X) \text{ subject to } PX \leq I$$

여기서 U 는 개인의 효용함수를 나타내고 X 와 P 는 선택대안이 되는 상품과 그 가격의 벡터, I 는 경제주체가 가진 소득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X 는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순전히 개인적인 소비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대미시경제이론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만족(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모형화된다. 여기서 개인은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상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X)$ 의 효용함수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경제학의 특징은 물질주의(materialism)이다. 효용함수는 인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현대경제학에서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이라는 선호의 특징과 최적화 과정(optimization)이라는 요소로 정의된다.

으로 소비할 상품의 종류와 양(X)만을 고려한다. 소비자 행동문제를 다룰 때 흔히 가정되는 비포화의 가정(non-satiation)⁵⁾은 ‘물질의 소비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물질주의의 고상한 표현일 뿐이다.

기업의 행동도 일반적으로 이윤극대화라는 ‘자기중심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미시경제이론에 나타나는 기업의 행동동기는 흔히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max R(P, Q) - C(Q)$$

여기서 R과 C는 총수입함수와 총비용함수를, P와 Q는 생산할 상품의 가격과 양을 각각 나타낸다. 즉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모형화된다.⁶⁾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소비자는 ‘효용’이라는 자기이익을, 생산자는 ‘이윤’이라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주체의 동기라는 믿음이 현대경제이론에서 고착화되어 버렸다. “모든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만 동기가 자극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말한 에지워드(Edgeworth)는 인간에 대한 현대경제학의 시각을 정리해 주고 있다.⁷⁾ 자기중심적인 소비자가 행동하는 원리를 시장수요함수로, 자기중심적인 생산자가 행동하는 원리를 시장공급함수로 정리하는 현대경제이론은, 다음 단계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자원배분의 원리들을 도출해 낸다.

5) David M. Kreps, *A Course in Microeconomic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33.

6) 물론 이윤극대화가 아닌 판매량극대화, 시장점유율극대화 등의 동기가 가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동기들도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Donald A. Hay, 앞의 책 「현대경제학과 청지기윤리」, IVP, p. 119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기중심적 인간모형을 기초로 하는 현대경제이론이 구체적으로 예측한 인간의 행태는 어떤 것일까? 자기중심적 인간관의 모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문제로는 공공재 공급에서의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현상,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등 매우 많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논의와 관계가 되는 몇 가지 현상들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무임승차 문제부터 보자.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면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다.⁸⁾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경제주체는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수요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재의 공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급규모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모자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라 한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주어진 제약 조건 아래서 자신의 만족(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무임승차 문제는 현대경제이론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시장실패 (market failure)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죄수의 딜레마도 무임승차의 문제처럼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합리적' 행동이 결국 모두가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상이다. '협조'와 '비협조'의 두 선택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기자들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 '비협조'를 선택하며 그 결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⁹⁾

8)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5, p. 28.

9) 현대게임이론의 용어를 빌리면 '비협조'를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현대게임이론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개인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가 가능함을 인정하는데 이는 주로 무한반복게임(infinitely repeated game)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협조’는 III에서 다룰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으로 받게 될 ‘보복’을 두려워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외관상 ‘협조’에도 자기중심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IV에서 일회게임(one shot game)으로서의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좀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 자기중심적 규범주의

앞에서는 현대경제학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인간모형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경제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인간을 상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현실을 잘 설명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이제 현대경제학의 ‘자기중심’의 원리가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 영역만이 아니라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의 영역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규범경제학은 어떤 경제적 상태가 더 바람직하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대경제학에서는 그 판단 기준으로 다양한 준거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뚜렷한 특징은 대개 파레토(효율성)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파레토 기준은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사회구성원 그 누구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게 자원이 배분되어 있을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파레토 기준은 사회상태의 바람직함(혹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주의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nsma는 파레토 기준이 왜 개인주의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⁰⁾ 우

이 된다.

10) “Normative Economics”, Georg N. Monsma, Jr. *Through the Eye of a Needle*:

선 파레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괄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좀더 명시적으로 고쳐 써 보자.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판단의 주체는 관련된 당사자 개인이다), 사회구성원 그 누구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게 (판단의 주체는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 개인이다)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괄호 속의 내용은 ‘손해’ 혹은 ‘효용의 증가’의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관련 당사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파레토 기준은 사회의 바람직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초로 ‘자기중심’의 이념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규범경제학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판단이 중국에는 각 개인들의 자기중심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주의를 뿌리로 하는 파레토 기준은 물질주의도 정당화한다. Monsma의 지적대로 파레토 기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만 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의 소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바람직한 상태로 옮겨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1.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범경제이론에서도 자기중심적 인간모형은 물질주의와 교묘히 연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후생학을 배운 학생들은 사회가 바람직한 상태로 옮겨가기 위한 조건은, 각 개인들의 자기중심적 판단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소비를 최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인상을 얻게 된다.

파레토 기준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얻었지만 그것이 가진 ‘보수성’ 때문에 현실적용력은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바람직한 경제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더 ‘일반적인’ 논의가 촉발되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를 찾는 문제로 귀착된다.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의 ‘효용함수’라 이해할 수 있다.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각 효용수준들을 사회후생(social welfare)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후생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W 는 사회의 효용수준을, w_i 는 개인 i 의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W = f(w_1, w_2, \dots, w_n)$$

위의 사회후생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벤담의 공리주의적 후생함수, Rawls적인 형평의 후생함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사회후생함수의 특징은 사회후생은 개인들의 효용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들의 효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경제학에서는 자기중심적 물질주의가 개인의 효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후생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든지 사회후생의 궁극적인 근원은 개인의 효용이고, 다시 개인의 효용은 자기중심적 물질주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경제학의 규범적 영역에서도 자기중심주의가 물질주의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기독교 경제관으로서의 청지기과 공동체 정신

현대경제학의 영역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는 실증경제이론만이 인간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람직하냐를 따지는 규범경제학에서도 자기중심적 물질주의적 공리주의가 기초가 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경제행위에서 어떤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지 정리한다. 이는 II에서 살펴본 현대경제이론에서의 전제들과 대단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1. 기독교의 인간관

성경은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창 1:26)이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정의와 선을 그 본성으로 받았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즐거워했으며(창 1:31), 들짐승과 날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아담의 모습에서(창 2:19) 우리는 죄성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인간 창조기사에서는 현대경제학이 공리로 받아들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물질주의적 인간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인간 본래의 품성은 타락으로 훼손되기 시작했는데(창 3장), 그 결과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창 4장)가 예시하듯 인간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존재로 변질되어 갔다. 가인사건 이후 인간의 선택과 행위는 주로 자기중심적 동기에 의해 지배받았으며, 인간관계는 권력과 공포의 관계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품성에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성경은 양심이 인간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롬 13:5). 즉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으나, 아직도 그 잔재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21~23)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15)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성은 이제 두 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원래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 물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보았을 때 현대경제이론은 인간성에 관해 죄성이라는 한 쪽 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y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¹⁾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때문에 훼손되었지만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신학적 원칙은, 인간 행위의 분석은 창조측면과 인간의 타락한 측면 모두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타락한 인간의 측면에만 기초를 둔 분석은 자기 이익적 행위를 강조하며, 진정한 이타주의적 행위를 무시하거나 설명에서 제외시켜 버릴 것이다.”

2 기독교의 경제규범 - 청지기 윤리와 공동체 정신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딤후 3:16). 여기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의 경제규범에 관해 살펴본다.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청지기 윤리와 공동체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청지기란 주인에게 고용된 대리인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재산(혹은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청지기 윤리에 의하면 인간은 경제행위 판단의 기준을 개인의 효용에 둘 수 없으며,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에 의존한다. 또한 청지기는 혼자 청지기의 직분을 완성할 수 없으며 서로가 청지기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를 진다. 따라서 청지기 윤리와 공동체 정신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청지기 윤리와 공동체 정신은 현대경제학의 규범적 틀이 개인이 중심이 된 공리주의에 입각하고 있음과 대조된다. 먼저 청지기 윤리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자.

창조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의 유일한 주인임을 확인한다(창 1:1). 다른 피조세계와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치권을

11) Donald A. Hay, 앞의 책 p. 137.

허용하신다(창 1:26). 여기서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인간 마음대로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권리가 아니다. 창지기에게 ‘주어진’ 통치권에는 그 자체에 통치권의 행사에 어떤 제약이 내재되어 있다. 그 제약의 근거는 다른 피조물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 형상이 아니라 내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겨진 통치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세계를 통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창세기 2:15에는 인간이 받은 창지기의 직을 성격의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즉 아담은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보존해야 하는 관리자의 지위를 받았다는 것이다.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행동은 착취보다는 보살핌을 의미한다. 인간의 타락과 그에 이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롭게 창지기의 역할을 준다(창 9: 1~3).¹²⁾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율법들도 창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케하기 위한 규정들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창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땅의 공평한 분배(레 25:23, 민 16:52, 신 19:14, 27:17)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창지기의 책임(레 19:9~10, 신 14:28~29, 4:19~21, 26:12)이 포함되어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구약의 창지기 정신이 더욱 강화되었다(눅 12:42, 벰전 4:10). 누가복음 19장의 므나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지기임을 친히 보이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창지기 정신의 자연스런 표현이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창지기는 각자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해야 하며, 서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보아야 한다. 성경은 창지기들은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지체로서 연합하고 협동하고 조화해야 한

12) 그러나 이 때 인간이 받은 창지기직은 처음에 받았던 창지기직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5)

“이와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경제규범은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바람직한 상태로 인정하며, 자기중심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한다. 따라서 현대경제학의 규범이론이 타락한 인간성을 강조하며 자기중심주의에 기초를 두는 것과는 달리, 성경의 규범은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선한 면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고 희생하기를 가르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그 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행 4:34~35).

IV. 실험경제학의 결과들

여기서는 인간의 타락한 측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대경제이론이 인간의 죄성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실험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서 소개할 실험에서는 경제학 전공 학생들과 경제학 비전공 학생들의 행태를 주로 비교하는데, 전자는 상대적으로 현대경제학에 더 많이 접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1. Marwell과 Ames의 실험결과

Marwell과 Ames는 경제학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들간에 무임승차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¹³⁾ 피실험집단을 경제학 전공 학생집단과 경제학 비전공 학생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나누어준다. 실험자는 은행에 실험집단별로 하나씩의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학생들은 실험초기에 받은 현금중 원하는 액수만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공동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즉 공동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돈은 각 개인들이 갖고, 공동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그 입금총량에 1보다 큰 값을 곱하여 돈을 늘려 각 집단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배한다.

이 실험에서 사회적(즉 집단내를 ‘사회’라 볼 때)으로 최적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돈 전액을 공동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동의 이익(최종 수취금액으로 표현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임승차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나는

13) Marwell, Gerald, and Ruth Ames, "Economists Free Ride, Does Anyone Else?: Experiments 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V",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une 1981, pp. 295-310.

한푼도 공동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계좌에 기여한 돈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동계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임승차의 문제를 이 실험은 의태하고 있다.

Marwell과 Ames는 이 실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경제학 전공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자신의 돈 중에서 평균 20%를 공동계좌에 입금한 반면, 경제학 비전공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평균 49%를 입금했다. 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당신은 몇 %를 공동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공정'(fair)하다고 생각합니까? ②당신은 공동계좌에 당신의 기여몫을 결정할 때 '공정성'을 고려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경제학 비전공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75%가 '50% 이상'이라고 대답했고, '100%'라고 대답한 비율은 25%였다. 그런데 경제학 전공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1/3 이상이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했다 하더라도 그 대답이 Marwell과 Ames의 표현을 빌리면 '대단히 복잡하고 코드화하기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경제학 전공 집단에 속한 나머지 2/3의 피실험자들은 아주 조금, 혹은 거의 한푼도 기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경제학 비전공 집단에 속한 거의 모든 피실험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경제학 전공 집단의 학생들은 약 50%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2. Carter와 Irons의 실험결과

Carter와 Irons는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비전공 학생들보다 더 자기중심적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종협상게임(ultimatum bargaining game)

을 이용한 실험을 했다.¹⁴⁾ 이 실험에서는 두 경기자에게 매우 간단한 최종 협상게임을 수행케 하고 그들의 행태를 관찰했다. 그들이 이용한 게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협상게임에 임하는 당사자는 두 명이다(게임의 당사자를 경기자라 부른다). 경기자 중 한 사람은 돈의 ‘배분자’(allocator)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용자’(receiver)이다. 실험자는 배분자에게 10달러를 주면서 수용자와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그런데 나누어 갖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분자가 수용자에게 10달러를 몇 대 몇으로 나누어 가질지 제의한다. 만약 수용자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면 배분자가 제의한 비율대로 10달러의 돈이 두 사람에게 배분된다. 만약 수용자가 배분자의 제의를 거부하면 실험자가 10달러를 도로 거두어 들고 게임은 끝난다. 즉 수용자가 배분자의 제의를 거부하면 그 누구도(배분자를 포함해) 한푼의 돈도 얻지 못한다.

자기중심적 동기를 가정하는 현대게임이론은 이 게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배분자는 10달러중 9달러를 자기의 몫으로, 나머지 1달러를 수용자의 몫으로 제안하며,¹⁵⁾ 수용자는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 왜 게임이론은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는가? 수용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제의를 거절하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기의 몫으로 1달러밖에 제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수용자가 처한 이런 상황을 최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배분자는 수용자가 받아들일 최소한의 몫인 1달러만을 수용자의 몫으로 하고 자신은 9달러를 갖겠다는 제의를 한다. 배분자는 이 제의를 수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계산에 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배분자는 9달러를, 수용자는 1달러를 얻는 것으로 게임은 종결된다는 것이 ‘이론적’ 결론

14) Carter, John, and Michael Irons, "Are Economists Different, and If so, Wh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pring 1991, pp. 171~177.

15) 여기서 우리는 편의상 1달러 이하로는 돈이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1달러의 1/100의 단위로 돈이 나뉘어질 수 있다면 배분자는 99.99달러를 차지하고 수용자는 0.01달러를 몫으로 하는 제의를 하게 된다.

이다.

Carter와 Irons는 이 실험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보다 배분자와 수용자의 모든 역할에서 게임이론이 예상하는 결과와 훨씬 가까운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제학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실험연구들에서는 대개 배분자는 50대 50의 분배몹을 제의하며, 만약 배분자가 제의한 분배몹이 일방적으로 한편에만 유리하다면 수용자는 '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그 제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⁶⁾

3. Frank와 Gilovich와 Regan의 '죄수의 딜레마' 실험결과

인간의 자기중심적 행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흔히 꼽는다. Frank와 Gilovich와 Regan(이하에서는 FGR이라 부른다)은 현대경제학에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중심적 행동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실험에서 이용했다.¹⁷⁾ FGR은 다음 표(이 표를 보수행렬이라 부른다)에 정리된 바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학 전공자와 경제학 비전공 학생이 자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즉 X와 Y로 불리는 두 경기자는 '협조'라는 대안과 '비협조'라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각 경기자는 상대방이 어떤 대안을 선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대안을 선택하며, 두 경기자가 선택한 대안들의 조합에 따라 보수행렬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의 돈을 받는다. 보수행렬에서 앞의 숫자는 경기자 X가 받는 돈, 뒤의 숫자는 경기자 Y가 받는 돈을 나타낸다. 예컨대 경기자 X가 '협조'를, 경기자 Y가 '비협조'를 선택했다면 경기자 Y는

16) Robert H. Frank, Thomas Gilovich, and Dennis T. Regan은 앞의 논문에서 Guth, Werner, Rolf Schmittberger (1982)의 연구와 Kahneman, Daniel, Jack Knetsch, and Richard Thaler (1986)의 연구를 예로 들고 있다.

17) Robert H. Frank, Thomas Gilovich, and Dennis T. Regan, 앞의 논문.

3달러를 받으나 경기자 X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두 경기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선택은 두 경기자 모두가 ‘협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게임이론은 두 경기자 모두가 ‘비협조’를 선택하게 되어 각각 1달러씩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¹⁸⁾ 왜 게임이론은 그런 결과를 예상하는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게임이론에 의하면 게임에 임하는 각 경기자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윤리적 판단보다는 자신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월전략이란 내가 무슨 전략을 선택해야 상대방의 선택에 관계 없이 내가 ‘나의 이익’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전략이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게임의 상황에서 경기자 X의 우월전략은 ‘비협조’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보자. 만약 상대방인 경기자 Y가 ‘협조’를 선택한다면 보수행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자 X는 ‘비협조’를 선택함으로써 ‘협조’가 가져다 주는 2달러보다 많은 3달러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경기자 Y가 ‘비협조’를 선택하더라도 경기자 X의 입장에서선 여전히 ‘비협조’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전략이 되는데, 이 경우 ‘협조’를 하면 경기자 X는 한푼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자기중심적’인 경기자 Y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두 경기자 모두 ‘비협조’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1달러씩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인간관을 가정하는 경제이론에서 논리의 필연적 결과이다.

		경기자 Y	
		협 조	비협조
경기자 X	협 조	2, 2	0, 3
	비협조	3, 0	1, 1

18) 여기서 우리는 일회게임(one-shot game)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FGR은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 게임을 총 267회 수 행케 했다. 한 게임에서 두 명의 경기자가 ‘협조’와 ‘비협조’의 대안들 중 각자 선택할 수 있으므로 267회의 게임에서 총 534번의 선택행태를 관찰할 수 있는 셈이다. 그 결과, 경제학 전공자들은 60.4%가 게임이론이 예측한 대로 ‘비협조’를 선택했고, 경제학 비전공자들은 단지 38.8%만이 ‘비협조’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두 그룹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대단히 유의한 것이다.¹⁹⁾ 즉 현대경제학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FGR은 이러한 결과가 혹시 피실험자들의 성이나 나이의 차이, 그리고 선택대안에 관한 상대 경기자와의 사전적 교감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여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앞에서의 결론을 뒤엎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4. Frank와 Gilovich와 Regan의 보충 조사자료

지금까지의 모든 실험들은 경제학 전공그룹과 경제학 비전공 그룹들간에 ‘자기중심적 행동의 경향’이 차이가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그 결과는 경제학 전공그룹들의 자기중심적 행동경향이 비전공 그룹들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혹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지 모른다. 즉 그 경향의 차이가 현대경제학에 많이 접했느냐 접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경제학을 전공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만약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현대경제학 그 자체가 인간의 이기적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FGR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다시 현대경제학에 별로 접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들과

19) FGR은 p-value가 0.005 미만이라 보고하고 있다.

경제학을 많이 접한 3, 4학년 학생들로 나누고 이들 간에 행태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했다. 만약 학년별로 나는 그룹들간에 '이기적 행태'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현대경제학은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학에 더 많이 노출된 학생들일수록 더욱 이기적 행태를 보인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²⁰⁾

FGR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일한 학년이라 하더라도 학생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신고전과 경제학 과목을 '더' 많이 수강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신고전과 경제학 과목을 '덜' 수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강 과목별로 그룹을 나누어 테스트를 해 보았다.²¹⁾ FGR은 어떤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각 그룹들에 대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²²⁾ 그 결과 신고전과 경제학 과목을 더 많이 수강한 학생일수록 인간의 양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 그룹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주어진 가상적 상황에서 자신이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20) FGR은 전공에 관계없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협조'적이 되는 경향을 발견했는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이 경향이 뚜렷히 나타났으나, 경제학 전공자들은 이 경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우리는 본문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21) '더' 신고전과 경제과목이라 함은 미시경제이론, 산업조직론, 게임이론처럼 이기적인 인간관을 이론의 명시적 기초로 이용하는 과목을 의미하고, '덜' 신고전과 경제과목은 경제발전론, 중국경제론 등 비주류의 경제과목을 의미하기로 한다.

22)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돈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돈 봉투를 주웠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또 당신이 예측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V. 실험경제학적 결과들의 함의

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인간관에 입각한 현대경제학의 ‘경제인’ 개념은 타락한 인간의 행태를 이해한다는 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행동동기가 타락한 죄성에서 ‘주로’ 비롯된다면 ‘경제인’을 가정하는 현대경제학의 이론은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이미 타락한 인간성을 모형화한 현대경제이론 그 자체가 인간성을 더욱 황폐케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경제학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뿐 아니라 물질만이 효용(만족)의 기초가 된다는 ‘공리’로부터 출발한다. 또 그 공리로부터 엄밀한 연역과정을 거쳐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경제모형들과 경제법칙들을 도출한다.

현대경제학의 또 하나의 중요 분야인 계량경제학 분야에서는 경제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test)을 한다. 현대경제학의 전통에 의하면 계량경제학적 기법으로 예측치와 현실 자료가 일치하면 그 예측을 도출해 낸 경제이론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현대경제학의 교육이 IV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동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면, 경제이론은 자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자기충족적 예측(self-fulfilling forecasting)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 물질주의적 인간을 가정한 현대경제이론 → 현대경제이론의 학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물질주의적 동기를 정당화하게 함 → 사람들은 그 전보다 더욱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 행동을 함 → 경제이론이 더욱 현실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현대경제학을 접한 사람들은 이기적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 면역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럴수록 현대경제이론은 강한 '현실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세력을 떨치게 된다. Tiemstra는 이 가능성에 관해 Daly and Cobb(1989), Griffiths(1984), Hill(1987) 등의 지적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교전과 경제학의 공리주의적 이념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경제학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킨다."²³⁾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반인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경제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사회적 교제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경제이론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진다.²⁴⁾ 지금까지 살펴본 실험결과들이 시사하듯 현대경제학에 접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강화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 그리스도인 경제학자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대경제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리차드슨의 접근법²⁵⁾은 너무나 소극적 방법일지 모른다.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 동기의 선한 면을 고양하는 직분에 관심을 보여야 할지도 모르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는 '기독교적 경제학'의 구축에 더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제현상, 예컨대 자원봉사, 구제활동, 헌신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23) John P. Tiemstra "Christianity and Economic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3, 1993, pp. 232-233.

24) 몇 년 전에는 우리 나라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위 '국민경제교육'이 국가시책으로 행해졌고, 국민들에게 경제교육을 보급한다는 취지의 국민경제교육연구원도 정부출연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5) David Richardson,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 - Economic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 Gordon college, 1994.

이론은 현대경제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기적 인간’이라는 가정에 의존해 서는 안될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 경제관으로서의 청지기 윤리와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경제윤리 교육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은 현대경제학을 가르칠 때 최소한 현대경제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인’ 개념이 결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타락한 인간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ogaman이 지적한 대로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가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의 지위를 차지할 때 우리의 경제적 삶은 왜곡된다.²⁶⁾

VI. 결론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에게 현대경제학의 분석도구들이 필요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지배하는 물질세계의 원리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자기중심주의, 물질주의를 가정한 경제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향상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현대경제학의 성과로부터 나왔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대경제학의 교육이 자기중심적 행위와 물질주의를 더욱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IV에서 소개된 실험경제학적 결과들은 우리의 이러한 우려가 근거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경제학자의 대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리차드슨은 그리스도인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학은 신고전파의 전통 안에서 최고의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라 했다.²⁷⁾ 그러나 본 논문은 리차드슨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통 안에서 경제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가 열심히

26) J. Philip Wogaman, *Economics and Ethics*, Fortress Press, 1986, p. 6.

27) David Richardson, 앞의 논문.

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현대경제학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길러내는데 방해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행위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기 위한 협조적 행태를 고양하기 위한 기독교적 경제학의 구축에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신고전파 경제학을 버릴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 경제학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²⁸⁾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기독교 경제학’이 탄생하기 전에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경제윤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가 함께 조화되어 교육된다면 자기중심주의와 물질주의에 관한 현대경제학의 일방적인 ‘세뇌’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에 관한 사례발견과 그 사례들을 설명하는 모형개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행동 동기에는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28)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이 ‘기독교적인’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한 동근,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연구』 26권, 통합연구학회, 1996, pp. 113~137을 참조하라.

참고문헌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5.
- 이재율, 「경제윤리」, 민음사, 1995.
- 한동근,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연구」 26호, 1996.
- Carter, John, and Michael Irons, “Are Economists Different, and If so, Wh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pring 1991.
- Chewning, Richard C. Ed., “Biblical Principles and Economics - The Foundations”,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Series*, Volume 2), Navpress, 1989.
- Daly, Herman E. and John B. Cobb, Jr., *For the Common Good*, Boston, Beacon, 1989.
- Frank, Robert H., Gilovich, Thomas, and Regan, Dennis T., “Does Studing Economics Inhibit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3.
- Griffiths, Brian, *The Creation of Wealth: A Christian's Case for Capitalism*, InterVarsity Press, 1984.
- Hay, Donald A., *Economics Today - A Christian Critique*, Erdmans Publishing 1991(「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IVP, 1996).
- Hill, Peter J., “An Analysis of the Market Economy: Strength, Weaknesses, and Future”, *Transformation* 4, 1987, pp. 40-47.
- Kreps, David M., *A Course in Microeconomic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Marwell, Gerald, and Ruth ames, “Economists Free Ride, Does Anyone Else?: Experiments 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une 1981.

Richardson, J. David,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
Economics!",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 1994.

Tiemstra, John P., "Christianity and Economic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3, 1993, pp. 227~247.

Wogaman, J. Philip, *Economics and Ethics*, Fortress Press, 1986.

Department of Economics and Business, *Through the Eye of a Needle:
Readings on Stewardship and Justice*, Calvin College, 1989.



■ 한동근 ■

1960년 대구 출생. 영남대에서 경제학 전공,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취득, 미국 Purdue대학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IVP, 공역) 역서와 그밖에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통합연구」, 26호) 등 다수 논문. 현재 기운실 대구지역 실행위원,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